

말씀대로 365와 함께하는

FAMILY DAY

<나를 만든 이야기>



가정예배 서약서

가정예배 드리기로 서약해요!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목차 Contents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 데이) 소개	05
10·11·12월호 소개 - 나를 만든 이야기	06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08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09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1주	10.03 ~ 10.09	슬기로운 안식생활	12
2주	10.10 ~ 10.16	말씀 위에 세우는 집	14
3주	10.17 ~ 10.23	하나님 나라	16
4주	10.24 ~ 10.30	서로 사랑하라	18
5주	10.31 ~ 11.06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24
6주	11.07 ~ 11.13	예수님의 이름	26
7주	11.14 ~ 11.20	그리스도인의 생활	28
8주	11.21 ~ 11.27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30
9주	11.28 ~ 12.04	경배와 소동	32
10주	12.05 ~ 12.11	일어나는 사람들	38
11주	12.12 ~ 12.18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40
12주	12.19 ~ 12.25	Merry Christmas_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42
13주	12.26 ~ 01.01	너는 내 운명	44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데이) 소개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며,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삶을 드리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롬 12:11-2, 요 4:23-24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 가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가족은 예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삶이 예배를 통해 묶여지게 되며,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그러므로 가정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세웁시다.

「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시 133:3 ** 」

패밀리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 안에서 회복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만든 이야기

‘이야기가 사람을 만든다’

#1

우리의 뇌에 지식과 정보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말과 소리와 눈빛과 숨결이 함께 담긴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아빠의 눈빛에 눈물이 글썽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는 상상도 하고
그 이야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꿈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법을 배우고, 소중한 가치를 배웁니다.
그렇게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형성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져 온 존재입니다.

#2

예수님도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그 이야기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되었고
그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 들려진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 아버지와 어머니,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정 속에서
감사와 경배로 이어지고 사명으로 준비되어
마침내 예수님이 그 이야기 자체가 ‘되었습니다’

#3

올 해 우리는 말씀대로 365의 긴 이야기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어느덧 갈릴리 호수를 거쳐
예루살렘 언덕을 지나 사마리아로,
지중해로, 땅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밋모섬의 요한과 함께
시간의 끝을 향한 비전 여행도 떠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이 땅의 이야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4

만일 이 이야기가 정말로 잘 전달된다면,
그래서 이 이야기가 기억의 가운데에 잘 자리 잡는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 아이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 가정에는 성경적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이야기여서
어제의 우리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왔듯이
오늘의 우리 삶을 형성해 갈 것이며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5

말씀대로 365와 함께 하는 가정예배책자 마지막 10-12월호,
그 성경의 이야기와 대림절 성탄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달의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11p

2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마가복음 2:23-28

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4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말씀듣기

5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10 OCTOBER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개천절

4

5

6

7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 E/G# A A/B B7 E E/G#
 오 주님당 신은 내 삶 - 구 석 - 구 석 - 까 지 감 찰 하 시 머 나 - 를 응 원

4 A2 Bsus4 B7 E E/G# A2 A/B B7
 하 시 - 는 분 - 내 길 을 밝 혀 서 영 원 - 한 생 - 명 의 - 길 로

7 E E/G# A2 A/B B7 C#m7 G#m7
 인 도 하 시 머 나 - 를 격 려 하 시 - 는 분 - 크 고 - 작 은 - 갈

10 A B7 C#m7 G#m7 A
 등 을 겪 고 - 하 지 만 - - 항 상 - 결 국 - 당 신 을 선택 - 합 니 다

13 B7 E E/G# A2 A/B
 - 나 의 - 유 일 - 한 고 - 백 의 - 대 상 - 은 오 - 직 아 들

16 E E/G# A2 A/B E E/G#
 - 다 운 - 당 신 뿐 입 - 니 다 - 나 의 - 유 일 - 한 고

19 A2 A/B E E/G# A2 A/B
 - 백 의 - 대 상 - 은 오 - 직 아 들 - 다 운 - 당 신 뿐 입 - 니 다 - 나 의

22 G#m7 C#m7 G#m7 C#m7 F#m7 A/B E
 - 예 배 를 받 - 으 소 서 홀 로 - 영 광 을 받 - 으 소 서 - 주 여 - - 나 의 - 주 여 -

10/3-9

1주 가정예배

즐거로운 안식생활

마가복음 2:23-28



이달의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11p



말씀읽기 - 마가복음 2:23-28

- 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 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밧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 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 27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 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생각하기

Q1. 기억에 남는 '휴식'이 있나요? 왜 기억에 남고, 무엇을 했나요?

Q2. 주일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또는 주일을 지켰지만 예배하는 기쁨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있다면 왜 그랬는지 생각해봅시다.



말씀듣기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자 이를 지켜 보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논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39종의 노동 금지법이 있었는데 추수도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질문하자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것을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다윗과 무리들이 사울에게 쫓기던 당시 몹시 굶주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진설병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안식일을 특별하게 여겨 엄격하게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출 20:1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누리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날인 주일에 거룩한 안식을 누려야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만 안식 할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안아주시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말씀 위에 세우는 집

누가복음 6:46-49



이달의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11p



말씀읽기 - 누가복음 6:46-49

- 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생각하기

- Q1.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비교하여 읽어봅시다.
- Q2. 집을 지을 때 단단한 평지위에 지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듣기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세우신 후 몇 가지 비유를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 한 비유로 두 가지 유형의 집 짓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튼튼히 하여 집을 짓는 사람이며, 또 한 사람은 모래와 같은 곳에 기초를 잘 돌보지 않은 채 집을 짓습니다. 마 7:26 이 두 사람이 만든 집은 처음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홍수와 같은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도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 비유를 생각하며 말씀 위에 믿음을 견고히 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기도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을 견고히 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3:18-21



이달의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11p



말씀읽기 - 누가복음 13:18-21

- 18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 19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갓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 20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 21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갓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생각하기

Q1.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Q2.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말씀듣기

오늘 말씀은 한 남자가 자기 농장에 심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18-19절} 이 비유의 핵심은 겨자씨의 작음과, 또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만들어 낸 결과의 확연한 대조입니다. 그렇게 작은 한 알의 씨가 결국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의 나무로 자라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는데, 결국은 5미터 이상 되는 나무가 됩니다. 그리하여 새들도 편안히 깃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작은 겨자씨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나 씨를 뿌려서 키우는 식물 가운데서는 가장 크게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가는 과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라고야하는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국도 그와 같다는 것이 오늘 의 비유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반드시 놀랍게 확장될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 선언됩니다.

또한 그것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서 말의 반죽에 잣다 넣은 누룩과 같다고 비유합니다.^{눅 13:20-21} 이 누룩이 마침내 가루서 말의 반죽을 다 부풀게 하고 말았다는 데 이 비유의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비유한 것이라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영향력, 변화시키는 능력을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나가 하나님나라의 소망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나라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35



이달의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11p



말씀읽기 - 요한복음 13:34-35

-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생각하기

- Q1.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 Q2.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듣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 서서 제자들 한명 한명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그 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다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어온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지길 원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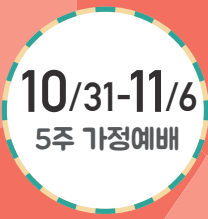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요^{3:16}.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주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교회 모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곳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도와 주거나 기도해주거나 대화를 하는 것, 모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기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제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사도행전 1:6-11



이달의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11p



말씀읽기 - 사도행전 1:6-11

- 0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 0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 0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0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 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생각하기

- Q1.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본 경험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Q2.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말씀듣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성령님이 곧 오실 것이다!’(8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확실하게 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세상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개혁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해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저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담당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11 NOVEMBER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달의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 날

위해 - 이 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나

의말과 뜻 다 해 - 주를 사랑합니다 - 날

위해 - 이 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네

가약할 때 강할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를 부요케 하 시나 의주 감 -

사 내사 감사 -

11 / 7-13

1주 가정예배

예수님의 이름

사도행전 19:11-16



이달의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25p



말씀읽기 - 사도행전 19:11-16

-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 13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 14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 15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 16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생각하기

Q1. 13절에 나오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Q2.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순간을 가족과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듣기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늘 담겨있지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 곳곳에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호와와 이름’이 나타나고^{삼상17:45},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때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행3:6}.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3:17}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요14:14}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지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쓰여진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름은 단지 호칭이나 글자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본질과 권위, 성품과 같은 것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 안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시는 본질과 권위, 성품 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던 사도바울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로마서 12:14-21



이달의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25p



말씀읽기 - 로마서 12:14-21

-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
- 17 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생각하기

Q1. 나를 싫어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Q2.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듣기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대하기 어려운 이웃은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으며,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질문할 때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14절}

여기서 핍박하다라는 말은 뒤쫓다, 추격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럴 때에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참고 피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까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자 의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바울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19절}고 권면합니다. 원수를 친히 갚는다면 그도 함께 악인이 되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며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세상을 살다보면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며 저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심을 믿으며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1/21-27

3주 가정예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추수감사주일)

고린도전서 13:13



이달의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25p



말씀읽기 - 고린도전서 13:13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생각하기

Q1.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에서 제일이라고 말한 ‘사랑’을 경험하거나 느낀 적이 있나요?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거나 느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나요?

Q2.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나요? 그리고 내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인 ‘사랑’을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을까요?



말씀듣기

종종 우리는 뉴스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그 사람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나누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기이식과 같은 형식으로 말이지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생명을 전달하여 주신 분과 그 가족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면서 내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귀한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경배와 소동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마태복음 2:1-3



이달의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25p



말씀읽기 - 마태복음 2:1-3

- 0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 0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 0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생각하기

- Q1.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경험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 나눠보세요.
- Q2.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한 마음을 나눠보세요.



말씀듣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에게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던 그의 신하들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웅성웅성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며 그 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자 헤롯 왕과 신하들의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의 소동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해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무관심한가요? 혹시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분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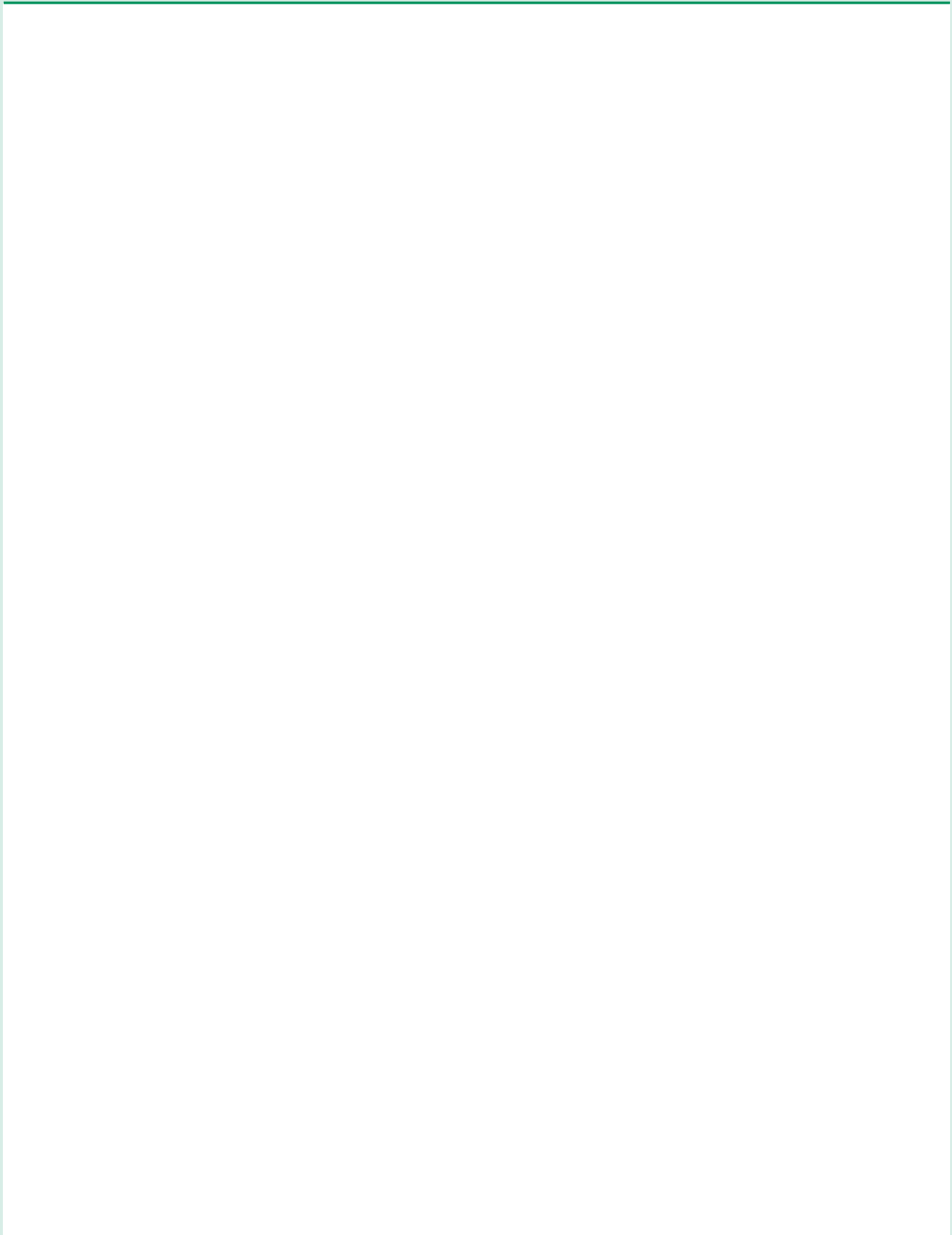
기도

2000년 전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12 DECEMBER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크리스마스
26	27	28	29	30	31	

이달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D A/C# Bm7 D/A G D/F# Em7 A7

1.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를 앞 이 라
상 지 식 보 다 귀한 것 예수 를 앞 이 라

5 D A/C# Bm7 D/A GM7 A7 1. D A7 2. D D7

금 은 보 다 더 귀한 것 예수 를 앞 이 라 2. 세 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를 앞 이

10 G D/F# Em A7 D Em7 D/F#

예 수 의 이 름 존 귀 한 그 - 이 름 -

14 G F#m Bsus4 B7 Em7 A7 D

예 수 의 이 름 능 력 의 그 - 이 름 -



일어나는 사람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마태복음 2:13-15



이달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37p



말씀읽기 - 마태복음 2:13-15

- 13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 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생각하기

- Q1.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갈 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
떠했을까요?
- Q2.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명
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듣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빨리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맡기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는 멀고 먼 길을 걸어가야 했고,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었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주님을 위해 걸어가고자 결단할 때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마태복음 2:19-23



이달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37p



말씀읽기 - 마태복음 2:19-23

- 19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 20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 21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 22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됄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 23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생각하기

- Q1. 나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싶나요?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Q2. 나는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함께 나누어보고 실천해 봅시다.



말씀듣기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로 기억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여러 모습들이 바뀐 것처럼 크리스마스마저 낯선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삶에 찾아 들어가심으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Christmas는 Christ(예수님)와 Mass(예배)가 합쳐진 단어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낙망하고 슬퍼하여 헛헛한 마음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해야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 시므온, 안나, 세례요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기다림의 시간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까지입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각자의 삶에 들어가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때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진정한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진정한 대림절이 되게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Merry Christmas_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태복음 1:18



이달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37p



말씀읽기 - 마태복음 1:18

-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생각하기

- Q1. 성탄절을 보내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고, 행복했고, 감사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Q2.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 약혼을 통해 사람들에게 혼인 관계를 알렸습니다. 약혼 기간은 보통 1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한 후에 앞으로의 결혼생활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순결을 지켜야 할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죽음에까지 내몰릴 수 있는 일이었기에, 마리아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도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절망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릴 수 없었던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와의 약혼을 조용히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요셉에게 알려 주셨습니다^{마 1:20}. 하나님은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사랑 안에 거함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함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하는 은혜로 응답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탄절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성탄절에 가득한 화려한 조명이나 값진 선물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림을 통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 화해와 평안,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너는 내 운명

요한계시록 3:20-22



이달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37p



말씀읽기 - 요한계시록 3:20-22

- 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각하기

- Q1. 내가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의 느낌은 어땠었나요?

- Q2.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언제 가장 크게 느꼈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
었나요?



말씀듣기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사랑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향해 ‘너는 내 운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어려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함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고전3:16}.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지여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주님께서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엡5:27},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진노하며, 때로는 쓰다듬고 때로는 혼을 내시며 교회를 다시 세우심과 같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심과 같이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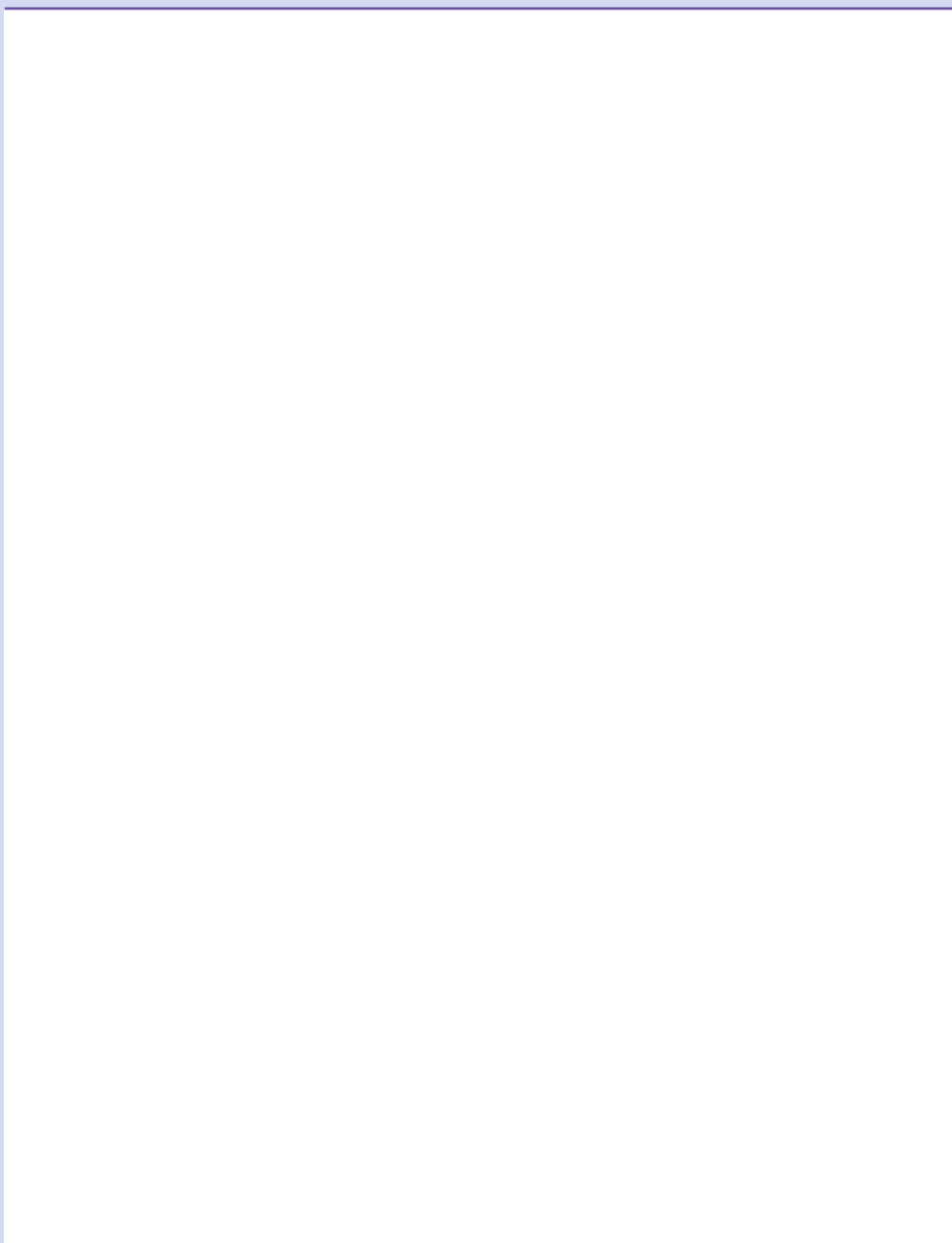


기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발행통권 | 30호
발 행 일 | 2021년 10월 1일
발 행 인 | 김운성
기 획 인 | 백성우, 정천우
편 집 인 | 지기원
디 자 인 | 한수진
집 필 진 | 영락교회 교육부 교역자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 02-2280-0131
발 행 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